

# ‘1시간 내 배달’ 전방위 경쟁... 판 커지는 퀵커머스

### 배달앱 넘어 대형마트·SSM·편의점까지 잇단 가세 배민B마트 실적 두각... 1분기 주문 건수 37%나 늘어 장보기 패턴 바뀌고 물류 거점화 가속... 올 5조 시장

퀵커머스가 배달앱을 넘어 대형마트, SSM, 편의점, 이커머스까지 확산하며 유통업계 핵심 경쟁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배송 속도 경쟁을 넘어 오프라인 점포의 물류 거점화와 소비자의 장보기 방식 변화를 이끄는 유통 구조 재편 수단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퀵커머스 경쟁의 초점은 ‘누가 더 빠르냐’보다 ‘누가 더 일상 소비에 깊게 침투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이 보편화되면서 속도 자체의 차별성은 약해졌지만, 필요한 상품을 1~2시간 안에 받아보려는 즉시 수요가 일상화하면서 시장의 독자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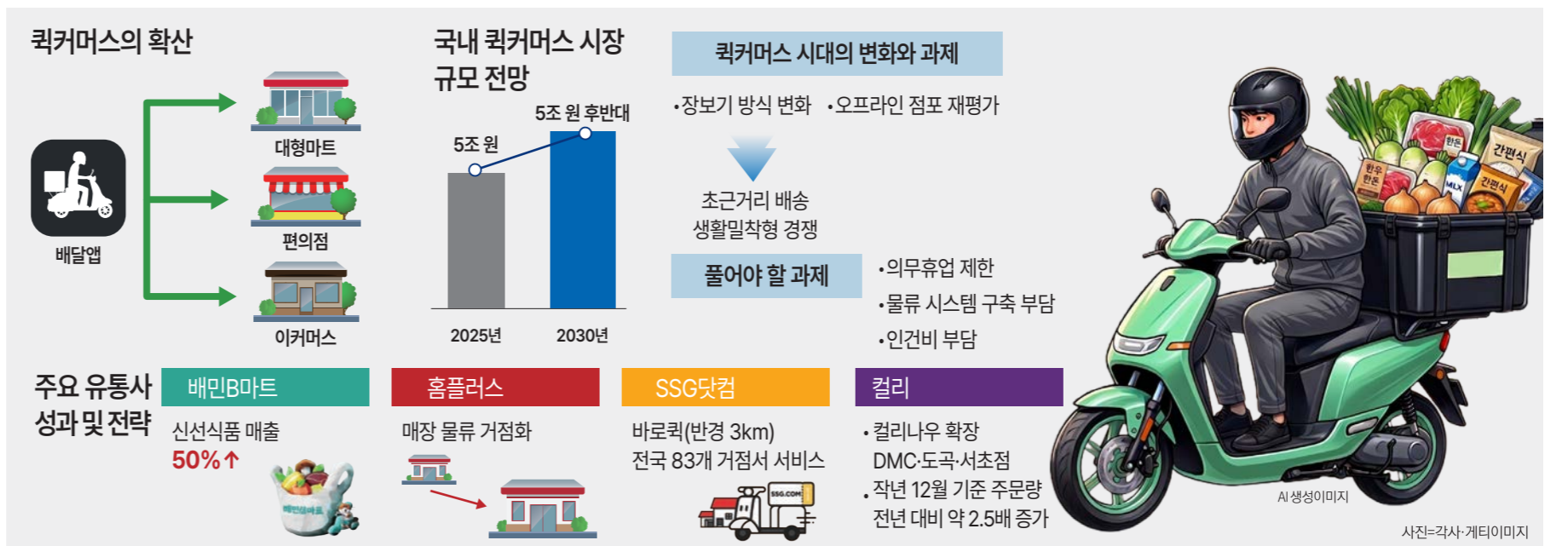
시장 성장 전망도 밝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올해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를 5조 원으로 예상했고, 관련 업계에서는 2030년 5조 원 후반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한다. 과거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퀵커머스가 이제는 주요 유통사의 핵심 채널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다.

가장 앞서 성과를 내는 곳은 배달이민족의 B마트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B마트의 올해 1분기 주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거래액과 고객 수는 각각 36%, 22% 늘었다. 월 3회 이상 이용하는 고객도 54% 증가했다.

특히 신선식품 매출이 50% 이상 늘면서 B마트가 생필품 긴급 구매를 넘어 일상 장보기 채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배민은 직매입과 자체 도식형 물류센터(MFC), 전용 PB 브랜드 ‘배민이지’, 구독 할인 혜택을 결합해 생활형 유통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반격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운영해 온 퀵커머스를 대형마트로까지 확대하며 매장의 물류 거점화를 추



진하고 있다. 쿠팡이츠 장보기·소매 내 입점 점포는 최근 47개로 늘었다. 익스프레스의 ‘매직나우’는 최근 4년간 60%대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고, 전체 293개 점포 중 223개 점포가 퀵커머스 물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마트 점포를 활용한 ‘바로퀵’으로 반경 3km 내 배송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83개 거점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달 1~19일 바로

퀵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SSG닷컴은 연내 거점 점포를 9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도 총출발 점포망을 앞세워 생활 밀착형 경쟁에 뛰어들었다. GS25는 자체 플랫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픽업과 배달 주문을 운영 중이며, CU와 세븐일레븐도 배달 플랫폼 연계와 퀵커머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단위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달 1~19일 바로

물류센터 없이도 근거리 배송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신선식품 중심 이커머스 컬리도 ‘컬리나우’ 확장에 나섰다. 컬리는 DMC, 도곡에 이어 최근 서초점을 추가로 열며 도심 거점을 넓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컬리나우 주문량은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새벽 배송이 계획형 소비를 담당한다면, 컬리나우는 낮 시간대 즉시 수요를 흡수하는 보

완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퀵커머스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흐리며 유통 경쟁 구도를 바꾸고 있다”면서도 “의무휴업에 따른 운영 제한과 물류 시스템 구축,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퀵커머스 경쟁은 상품 구성과 가격, 물류 효율, 거점 확보 능력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금속노조, 불법파견 판결에 “사법부 퇴행” 반발

“왜 공권력은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명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10월 27일 최종 대법 승소 확정 판결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례로 불법 파견이 종지부를 찍는 줄로 알았다”며 “권력의 접점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어떠한 로비로 사법부를 길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진행되는 하급심 판결에서는 어이없게도 증거불충분이라는 말 걸지 않은 이유로 패소 결과를 내려버렸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불법 파견 판결에서 핵심적인 증거 확보 절차인 현장 검증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

백 지회장의 견해다. 그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장 검증은 불허한 채 자본이 요구하는 시간 끌기, 증거불충분 작태에 동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할 일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명백한 불법 파견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고 원청의 지시 없이 현장은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회장은 “자본의 범망을 피하려 자회사로 세우고 2차 하청을 끼워 넣는 기만적인 꼼수를 부릴 때 사법부는 실질을 파헤치기는커녕 적법한 도급이라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임금, 가이드라인부터 인원 배치, 단체 교섭, 노동조건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키마데일리

전 문제까지 원청이 모조리 통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기록들이 문서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라고 소개한 이연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사법부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조합원은 “현대자동차의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며 “1심과 2심 법원은 2차 협

### 현대차 비정규직 판결 두고 공정성 문제 제기 “현장검증 외면, 증거 불충분 판결 납득 못해”

력업체는 독립 사업이 아니라 인력 공급 구조이고 실질적인 지휘 관리 주체는 현대자동차이며 현대글로벌비스는 형식적인 중간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차와 2차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합원은 “202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실질 사용자이고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은 약 2년째 판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방치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청의 작업장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해, 원청의 지시대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1차·2차 하청의 구분이나 직접·간접 공정의 차이는 허울뿐인 형식에 불과한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법부가 불법

파견의 기준을 가장 좁은 의미인 목시적 근로관계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직접 고용 원칙과 노동법의 중간 착취 배제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법원의 퇴행이 하급심으로 전연되고 있다고 역설한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피력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은 겉보기엔 계약서가 아니라 노동의 실체를 봐야 한다”며 “자본의 꼼수를 용인하는 편향된 심리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대법원을 향해 촉구했다. 이영훈 기자 yhleee@skyedaily.com

비빔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가라.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